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역대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2019년 2분기에 인도량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며 월가의 수요 우려를 불식시켰다.

3일 '뉴스핌'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테슬라가 2분기 중 9만5,20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51.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1분기 인도량 6만3,000대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며, 지난해 2분기 기록했던 4만7400대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2분기 중 생산 차량 대수도 8만7048대로 1분기의 7만7,100대에서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역대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접화됐던 수요 우려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모델3 해외 인도가 시작된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해외 선적 및 인도 운영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것이 비용 절감과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인도 중이지만 아직 고객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차량도 7,400대에 달한다"며 "이는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그간 전기차 보조금 축소,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유동성 문제 등으로 실적 우려가 크게 부각됐다. 특히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6만3,000대에 그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장 예상치 7만3,500대에 한참 모자란 데다, 지난해 4분기(9만966대)와 비교하면 31% 급감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저가가 3만5,000달러에 달해 소비자들이 선택 지갑을 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중국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려 상하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악재로 꼽혔다.

월마트·타깃 "아마존·구글 '반독점 조사' 돕겠다"

월마트와 타깃, 베스트바이 등 미국 대형 유통 체인업체들이 정보기술(IT) 공룡에 대한 미 정부의 반(反)독점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는 전날 "아마존과 구글의 최대 경쟁자들이 정부에 반독점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NB에 따르면 월마트 등을 대표하는 소매산업지도자협회(RILA)는 지난달 30일자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보낸 서한에서 규제 당국이 좀 더 광범위한 반독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좋은 처우를 받는지 평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 반독점국장 마칸 텔라힘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다.

FTC는 법무부와 함께 미국에서 반독점 규제를 담당

하는 기관으로, 이 둘은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4대 IT 공룡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분담해 수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RILA는 서한에서 IT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가격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인프라(기반시설)'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IT 기업들이 가격과 관계없는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광고 노출 문제 등을 거론하며 IT 기업이 치열한 경쟁자에서 지배적 독점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레스토랑 추천 사이트 옐프, 뉴스 분야의 뉴스코프, IT 기업 오라클 등이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에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P·델, 중국 노트북 생산라인 일부 동남아로 이전

휴렛 팩커드(HP)와 델 등 미국 컴퓨터 메이커가 중국에 전개한 노트북 생산라인의 최대 30%를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뉴시스'가 닷케이 신문의 이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HP와 델 등은 미국 정부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유예했지만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노트북 생산거점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업체 외에 아마존 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국내 태블릿과 게임기 등의 생산거점 분산을 주요 거래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P와 델의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는 양사가 중국 장추성과 상하이, 충칭 등에서 전자기기 위탁 제조 서비스(EMS)사에 주문 생산하는 노트북의 20~30%를 중국 외로 이관할 생각이라며 이는 대미 수출에 상당하는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후보지로는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이 거론되고 있으며 벌써 이들 EMS 제조 거점에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르면 이달부터 9월 사이에 이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HP와 델 등은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생산거점을 다양화해서 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컴퓨터 전문 조사회사 IDC 통계로는 컴퓨터 세계 출하량에서 HD가 1위, 델은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 합쳐서 전체의 40%를 점유한다.

노트북 생산 세계 2위인 중국 레노보도 중국에 있는 생산라인의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플러튼 / 부에나팍 / 스탠튼 / 라미라다 / 싸이프레스 / 플라센티아 / 로스알라미토스 / 테메쿨라 / 코로나 / 실비치 / 헌팅톤비치



주택 사고 팔 때는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로즈메리!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realtorrosemary3819@gmail.com

브레아	부에나 파크	싸이프레스 (타운하우스)	플라센티아	플라센티아
방3/화2, 건평 약 1,100sf 아늑한 도시 브레아 몰 다운타운 가까움, 좋은학교	방3/화2, 건평 약 1,300sf 넓은 거실 새로운 도배/도색 새지붕, R.V.주차장	방3/화2, 건평 약 1,400sf 새목재 바닥 새로운 도배/도색 복스포드 고등학교	방3/화2, 건평 약 1,200sf 쇼핑센터, 프리웨이 공원 가까움 새마루바닥	방2/화1, 건평 약 730sf 깔끔한 집 완전 업그레이드 된 욕실
62만	59만 9천	49만 9천	56만 5천	49만 9천
라미라다	부에나 파크	테메쿨라	테메쿨라	요바린다
방3/화2, 건평 약 1,300sf 라미라다 공원 도보거리 골프코스 쇼핑센터 가까움	방4/화3, 건평 약 1,600sf 넓은 거실 편리한 5번, 91번 프리웨이 RV주차장	방3/화2.5, 건평 약 1,700sf 학교, 공원, 수영장 테니스장 도보거리 프리웨이 가까움	방3/화2.5, 건평 약 1,900sf 편안한 분위기 업그레이드 완전 지붕된 SOLAR PANELS	방4/화2, 건평 약 1,700sf 큰 거실, 수영장 RV 주차장 편리한 91번 프리웨이
61만	62만 5천	41만	43만 2천	62만

* 팔고 사는 집, 언제나 신중함과 성실, 인내로 모십니다 * 학군 및 용자 상담

866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